



(주)원지산업 고인홍 주임

‘이달의 근로왕’ 수상

서 울시가 지난 4월부터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이달의 근로왕’ 표창제도를 신설했는데 영광의 그 첫 수상자로 구로공단에 위치한 (주)원지산업(대표 한용교)에서 생산부 주임으로 있는 고인홍 씨(38)가 선정되었다.

고씨는 1980년부터 원지산업에 입사한 후 이듬해에 작업중 손 부상으로 2개월간 입원한 경우를 빼고는 단 한차례의 결근이나 지각, 조퇴없이 한 직장에서 13년을 성실히 일해오고 있다. 보다 나은 조건만을 쫓아 보따리를 싸고 푸는 것이 보통인 근래의 구로공단 풍토에서 것처럼 한 직장에서 장기근속하고 있는 근로자를 보기란 드문 일일 것이다. 더구나 지각, 결근없이 주야간 이든 휴일이든 가리지 않고 십년을 하루같이 일해온 사람임이라. 그래서 그런지 고씨에게는 ‘철인’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제가 무슨 특별한 일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와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을 뿐이죠.”

이렇게 겸손의 미덕을 보이지만 그

는 응당 ‘근로왕’이라는 타이틀을 받고도 남을 자격을 지녔다.

고씨는 전남 흑산도의 가난한 어촌에서 5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려서 부친을 바다에 잃고 어렵게 성장한 고씨는 자신과 어린 동생들만은 난 바다에 생을 의지하게 만들지는 않겠다고 굳은 각오를 했다.

목포에서 어렵사리 고등학교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온 고씨는 지금껏 갖은 고생을 해오면서도 박봉을 쪼개어 고향에 계신 어머니와 동생들의 생활비와 학비를 보내고 있다. 또한 그러한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직장동료들의 경조사를 일일이 챙기는 것은 물론 공단 인접지역인 시흥과 구로동 등지의 양로원이나 재활원 등에 정기적으로 성금 및 성품을 보내는 선행을 해오고 있다. 그가 진짜 ‘왕’인 이유는 바로 이런 점에어서이다.

고씨는 이제 회사에서 몇몇 임원들과 함께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초창기 멤버에 속한다. 이런 경력과 선한 인품이 있는 탓으로 근로자들의 말형 역할을 하고 있는 고씨는 노사분규가 극심했던 지난 87년부터 사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측 위원을 맡아 노사 양쪽

의 입장을 적절히 중재해내는 조정자 역할도 훌륭히 수행, 단 한번의 노사분규도 없는 회사를 만드는데 큰 몫을 해오고도 있다.

“평소 동료와 후배들에게 친구나 형처럼 대하며 그들의 어려움을 들어주려고 애쓰고, 특히 3D현상이 심화되면서 작은 불만이라도 회사측에 전달해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는 고씨는 한편으로 “처음 입사할 무렵의 활발했던 분위기와는 달리 요즘 구로공단은 일하려는 사람이 줄어 일감이 있어도 기계를 돌리지 못하는 상태”를 안타까워했다. 그래서 누구나 편한 일만을 쫓는 풍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가 근로의욕을 부추기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는 지적도 덧붙인다.

‘근로왕’, ‘철인’ 뒤에는 당연히 내조자가 있기 마련이다. 맞벌이를 하면서도 헌신적인 내조를 다하는 그의 부인 이정화 씨(36). 그의 부인은 또다른 왕이 아니겠는가.

이처럼 이름없는 왕들의 피땀흘린 노동과 선행이 세상의 높은 권좌에 앉아 있는 왕들의 몸짓보다 더 세상을 아름답게 할 것이다. ▣